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66)(9/18/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8 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1- 2 절

요 11:28 -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 16:26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롬 8:35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눅 12:21 -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 어떤 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에는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모든 위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 마디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요 11:28)고 말하자, 마리아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울고 있는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때야말로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척박하고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마 16:26)

2.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끔찍한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달콤한 낙원입니다(롬 8:35).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좋은 보화, 곧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 곧 온 세상을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눅 12:21).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주님과 의 깊고도 친밀한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성령의 함께하심이었다. **요 14:16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사 7:14 -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임마누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도 실현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마 28:18-20 - 1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고난과 환난 중에 낙심하지만 위로를 받고 소망을 회복하는 이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은 그 동행 가운데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 14:26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보혜사(위로자, 권고자, 변호자)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고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아울러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 14:27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며 기도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성도들에게 충만이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품고 있는 것이다. 골 2:1-3 -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 3:8 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다. 빌 3:7-9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 .

예수님이 보화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된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된 예수님의 제자 출신의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초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보화였기 때문이다.

최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면한 시험 중의 하나는 진짜 보화를 업신여기고 가짜 보화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은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보다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붙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될 때, 바로 그 때 우리는 가장 큰 불행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고전 1:9 -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승리를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의 중심,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미전도 종족들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서게 하시고, 대선을 앞둔 한국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